

李常和의 『辨證方藥正傳』에 관한 小考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¹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研究所²
金基郁¹ * · 朴炫局²

A Study on Yisanghwa(李常和)'s 『Byeonjeungbangyakjeongjeon(辨證方藥正傳)』

Kim Ki-wook¹ * · Park Hyun-guk²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²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Byeonjeungbang-yakjeongjeon(辨證方藥正傳)』 was written in the year of 1946 by Lee Sanghwa (李常和) by adding on the original 『Bang-yakhappyeon(方藥合編)』. 850 formulas based on experience from the times of old and present were added to the original 588 of 『Bang-yakhappyeon』 and Kimsamul(金四物)'s Samultang(四物湯) modification[加減], Yun Chochang(尹草窓)'s Ijintang(二陳湯) and Pyeong-wisan(平胃散) modification, Idongwon(李東垣)'s Bojung-ikgitang(補中益氣湯) modification, and Pung(馮)'s Yukmijhwangtang(六味地黃湯) modification were added. The 60 medical texts that he consulted greatly influenced the formulas that were added, and of those books the ones of interest include 『Seoksilbirok(石室秘錄)』, 『Byeonjeungrok(辨證錄)』, 『Byeonjeunggimun(辨證奇聞)』 and 『Bucheongjunamnyeogwa(傳青主男女科)』. If we analyze the 850 formulas of 『Byeonjeungbang-yakjeongjeon』, 290 of them, 34%, are related to Jinsatak(陳士鐸)'s medical texts, and of those 290, 15 are from 『Seoksilbirok』(5%), 49 are from 『Bucheongjunamnyeogwa』(17%), and 226 are from 『Byeonjeungrok』(78%).

So, the added formulas of Leesanghwa's 『Byeonjeungbang-yakjeongjeon』 have been greatly influenced by Jinsatak(陳士鐸), and by looking through Jin(陳)'s medical ideas one can find the origin of prescriptions and become more flexible.

Key Words : Byeonjeungbang-yakjeongjeon(辨證方藥正傳), Bangyakhappyeon(方藥合編), Isanghwa(李常和), Jinsatak(陳士鐸)

I. 序 論

현재 한의사들의 임상 현장에 있어 가장 용이하게 참고하는 처방집은 바로 黃度淵의 『方藥合編』 588方を 들 수 있지만, 『방약합편』 뒤에 첨부된 增補方 850方の 유래와 저작 및 원류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 교신저자 : 김기욱.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E-mail : kkw@dongguk.ac.kr Tel : 054)770-2664.

접수일(2009년 7월 14일), 수정일(2009년 8월 14일),

게재확정일(2009년 8월 14일)

즉 臨床醫들은 황도연의 『방약합편』을 일반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지만, 임상에 있어 처방의 한계에 부딪치게 되면 『방약합편』 뒤에 붙어 있는 증보방을 이용하여 임상에 응용하면 奇效를 거두거나 많은 도움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증상에만 입각하였지 처방이 구성된 생리·병리학적인 이론의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근대 李常和의 『辨證方藥正傳』에는 황도연의 『방약합편』 588방에 첨부된 증보방 850방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 증보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방약합편』 처방과는 궤를 달리하는 처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논자는 이러한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방약합편』의 연보, 『변증방약정전』의 대강, 이상화의 의학사상을 간단히 정리,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論

1. 『方藥合編』年譜

『方藥合編』은 黃度淵이 1855년에 편찬한 『附方便覽』 28권, 1868년에 편찬한 『醫宗損益』 12권, 1869년에 편찬한 『醫方活套』 1권, 1885년에 편찬한 『方藥合編』 1권 등이다¹⁾. 황도연이 사망 후 그의 아들 黃泌秀가 『의방활투』에 『의중손익』의 본초부분인 藥性歌를 보충하여 간행되었다. 惠庵의 의학사상은 原典에 근거한 의학 이론의 集約 및 眞髓를 발췌한 ‘時宜性’과 ‘簡明化’로 요약될 수 있고²⁾, 현존하는 『방약합편』의 종류에는 1926년 李常和가 編述한 『辨證·方藥正傳』 이외에 약 20여종이 있다. 아래에서 『방약합편』의 연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³⁾.

- ① 1807(純祖7 丁卯)년 原著者 黃度淵 出生
- ② 1855(哲宗6 乙卯)년 『附方便覽』 14권 編述

1)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외 11人 著. 韓醫學通史. 고양. 대성의학사. 2006. pp.437-438.
 2)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외 11人 著. 韓醫學通史. 고양. 대성의학사. 2006. p.439.
 3) 黃度淵 著. 南山堂編輯局 編譯. 對譯證脈方藥合編. 서울. 南山堂. 1985. p.5-2.

③ 1868(高宗5 戊辰)년 『醫宗損益』 12권 및 同附錄 『損益本草』 1권 編述

④ 1896(高宗6 己巳)년 『醫方活套』 1권 編述

⑤ 1884(高宗21 甲申)년 10월 5일(음력 8월 17일) 原著者 黃度淵 卒

⑥ 1885(高宗22 乙酉)년 1월 中旬(음력 甲申年 12월 上旬) 方藥合編 開刊, 黃度淵 原著 醫方活套를 全載하고, 그 上欄에 損益本草를 合附하여 『方藥合編』이라 호칭하였고, 그의 아들 黃泌秀 編述

⑦ 1885(高宗22 乙酉)년 9월(中秋) 重訂方藥合編 美洞新刊 黃度淵의 弟子 美隱 玄公廉⁴⁾ 活套鍼線 比舊加詳 重訂版으로 編述

⑧ 1887(高宗24 丁亥)년 證脈方藥合編 治洞 新增版 美隱玄公廉(號는 西齊)編述

⑨ 1907(隆熙1 丁未)년 新訂方藥合編 光東書局版 新訂大方藥合編 文尙堂版(現 杏林書院版도 同名)

⑩ 1918(日帝·大正7 戊午)년 證脈·方藥合編 木版影印本 高裕相(滙東書館主)編輯兼發行

⑪ 1923(日帝·大正12 癸亥)년 原本證脈方藥合編 博文書館版

⑫ 1926(日帝·大正15 丙寅)년 增訂方藥合編 大昌書館版

⑬ 1927(日帝·昭和2 丁卯)년 辨證·方藥正傳 現世昌書館版 三空齊 李常和 編述

⑭ 1939(日帝·昭和14 己卯)년 新訂大方藥合編 京城醫學硏究會 編 文尙堂書店

⑮ 1948(大韓民國30·戊子)년 新校·方藥合編 德興書林版

⑯ 1953(大韓民國35·癸巳)년 增訂·方藥合編 三一堂版

4) 玄公廉은 惠庵 黃度淵 선생의 수제자로 字를 美隱、號를 西齊라 하였다. 黃泌秀 儒醫와는 동료지간으로 생각된다. 황도연 선생 후한 後에 황필수 선생의 편술로 된 方藥合編이 高宗21(甲申)년 陰曆 歲末에 開刊되자 황필수의 지시를 받아 重訂하여 1888(高宗23 乙酉)년 9월에 重訂·方藥合編을 발간하였고, 계속 이의 增補를 피하여 1887(高宗24 丁亥)년에는 證脈·方藥合編을 발간하였다. 그 후 三空齊 李常和 先生이 『辨證方藥合編』을 1927(日帝·昭和2 丁卯)년에 發行하였으나 오늘날 『方藥合編』이라 하면 책명이야 어떻든 실제 내용으로서는 證脈·方藥合編을 말하는 것으로 통하고 있다.

- ⑰ 1975(大韓民國55·乙卯)년 增註國譯 方藥合編 杏林書院版 廉泰煥 國譯
- ⑱ 1976(大韓民國58·丙辰)년 增補國譯 最新方藥合編 綜合通信教育院版 金義乾 篇譯
- ⑲ 1977(大韓民國59·丁巳)년 新訂對譯 大方藥合編 杏林書院版 李泰浩 編
- ⑳ 1977(大韓民國59·丁巳)년 對譯證脈·方藥合編辨證增 南山堂編輯局 譯編
- ㉑ 1978(大韓民國60·戊午)년 對譯證脈·方藥合編辨證增補懷中版 南山堂編輯局 譯篇
- ㉒ 1989(大韓民國71·己巳)년 方藥合編解說 傳統醫學研究所發行 申載鏞 編
- ㉓ 2002(大韓民國84·壬寅)년 新增方藥合編 永林社編輯部發行 辛民教 編

2. 『辨證方藥正傳』의 大綱

오늘날 임상계에서 곁에 가까이 두고 이용하는 처방집 가운데 『방약합편』이 가장 애용되고 있다. 그 중에 黃度淵의 『방약합편』을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임상에서 이들 처방에 대한 한계에 부딪치게 되면 『방약합편』 뒤에 붙어 있는 增補方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기존의 『방약합편』 처방과는 궤적을 달리하는 처방구성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辨證方藥正傳』은 李常和가 丙戌(1946)년에 기존의 『方藥合編』을 증보하여 저작한 것이다. 이전의 『방약합편』 588방에 고급의 경험비방 850방을 증보하고 金四物의 四物湯 가감법, 尹草窓의 二陳湯과 平胃散 가감법, 李東垣의 補中益氣湯 가감법, 馮氏의 六味地黃湯 가감법을 덧붙였다⁵⁾.

李常和의 호는 三空齋이다. 일찍이 己卯년 가을에 京城에서 間島로 건너가 그곳에서 漢醫講習會를 열었고 300여명의 강습생이 발의하여 間島醫藥協議會 회장으로 추대되었고 月報를 간행하였으며 한의

를 양성시키기 위해 講習所를 개설하여 책임을 맡아 운영하였다.

그는 『增補方藥合編』, 『麻疹經驗方』, 『醫學指南』을 편찬하였고 평생 동안 수많은 醫籍을 읽고 쌓은 의학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辨證方藥正傳』 저작에 정력을 쏟아 부었다.

이 책의 속표지에 白凡 金九(그림 1. 金九先生의 題解)⁶⁾, 勉石 李揆同, 성제 李始榮의 題字가 있고, 李揆同, 權相老가 「서문」을 지어⁷⁾ 임시정부 인사들과 교분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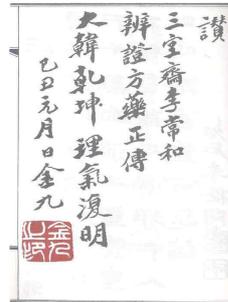


그림 1. 金九先生의 題解

『辨證方藥正傳』은 음양오행의 변화, 인체의 생성 구조, 장부경락의 조직, 기혈과 정신의 화생, 察色, 辨音, 問證, 진맥의 四診要訣, 劉完素의 오운육기 병기, 李東垣의 外感內傷辨證, 한열허실표리음양의 八綱, 汗和下消吐清溫補 8법의 논치 등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⁸⁾.

3. 李常和의 醫學思想

- 6) 李常和 著. 『辨證方藥正傳』《增補最新方藥合編》. 서울.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76. p.1.
- 7) 李常和 著. 『辨證方藥正傳』「序」《增補最新方藥合編》. 서울.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76. pp.1-4.
- 8) 李常和 著. 『辨證方藥正傳』「序」《增補最新方藥合編》. 서울.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76. p.6. “今又刪繁撮要以爲辨證方藥正傳一冊, 卽陰陽五行變化, 人體生成構造, 臟腑經絡組織 氣血精神化生, 察色辨音問證診脈四診要訣, 五運六氣病機二百七十七字, 外感內傷辨證, 寒熱虛實表裏陰陽八條, 論治汗和下消吐清溫補八法.”

5) 李常和 著. 『辨證方藥正傳』「序」《增補最新方藥合編》. 서울.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76. p.6. “前方藥合編五百八十八方, 古今經驗秘方, 增補八百五十方, 金四物四物湯加減法, 尹草窓二陳湯平胃散加減法, 李東垣補中益氣湯加減法, 馮氏六味地黃湯加減法之類是也.”

李常和(그림 2. 이상화 선생 진영)⁹⁾의 의학사상의 배경은 『辨證方藥正傳』에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漢方醫學指南』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三空齊
李常和 先生 眞影

『한방의학지남』 이상화 「서문」(그림 3. 『漢方醫學指南』)¹⁰⁾에서 “사람을 구하는 의서는 모두 성인의 말이다. 이는 매우 정미하여 터럭만한 오차가 없어 후생들은 그 틈새를 增損해서는 안 된다. 기후의 변화가 옛날과 지금이 다르고 사람의 강약도 옛날과 지금이 다르다. 약물은 옛날의 기후에 적합하지만 지금은 적합하지 않으며 옛날 사람에게는 부합되지만 오늘날 사람에게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는 성인의 의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후와 인물이 그렇다는 뜻이다. 기후와 인물이 그렇지만 그 실제를 궁구하면 의학을 연마하는 후생이 잘못 응용하기 때문이다. 성인의 의서를 깊이 살펴보아 옛것을 헤아려 지금에 헤아리고 옛것을 끌어다 지금에 비교하면 고금이 서로 비취 함께 일치하니 어찌 적합하지 않는 이치가 있을 것인가! 나는 일찍이 이러한 점에 유감을 느껴 間島와 滿洲에서 23년 동안 지내면서 수 백 명의 인사와 함께 의학을 연마하고 또한 각 분야의 의서를 구해 번잡함을 삭제하고 요점을 취하여 4책을 만들어 ‘漢方醫學指南’이라 명명하였다. 이는 나의 말이 아니며 또한 增損하지도 않았

9) 李常和 著. 『辨證方藥正傳』《增補最新方藥合編》. 서울.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76. 페이지 수 없음.

10) 李常和 著. 『漢方醫學指南』「序」. 서울. 綜合醫苑社. 1974. p.1.

다”¹¹⁾고 하여 이전에 古今異軌說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을 추구해보면 그 이치가 같다고 보았다. 따라서 옛것을 인용함에 있어서 늘이거나 줄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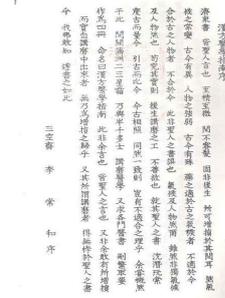


그림 3. 『漢方醫學指南』序文

이 책의 「凡例」에 따르면 『靈樞』, 『素問』, 『難經』, 仲景에 기초하고 金元四大家를 갖추면 醫道가 완비된다고 보았고 陳修園의 25법 방론을 참고하였다¹²⁾고 한다. 그가 참고한 의적을 살펴보면 『周易』, 『內經』 등을 비롯하여 『道通大成』, 『抱朴子』 등 道家 서적과 金元四大家 의서, 明清시기 주요 의가의 의서, 『中西匯通』 및 『東醫壽世保元』, 『濟衆新編』 등 朝鮮의 의서 등에 이르기까지 60여 종에 이른다.

그리고 주목되는 것은 『石室秘錄』, 『辨證錄』, 『辨證奇聞』, 『傳青主男女科』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가 참고한 고금의 의서들은 『辨證方藥正傳』의 增補方에 選方하여 넣은 것에 많은 영향을 끼쳤

11) 李常和 著. 『漢方醫學指南』「序」. 서울. 綜合醫苑社. 1974. p.1. “濟衆書, 皆聖人言也. 至精至微, 間不容髮, 固非後生, 所可增損於其間耳. 然氣候之常變, 古今有異, 人物之強弱, 古今有殊. 藥之適於古之其候者, 不適於今合於古之人物者, 不合於今. 此非聖人之書誤也. 其候及人物然爾, 雖然非獨其候及人物然也. 苟究其實則, 後生講磨之工, 不善故也. 就其聖人之書, 沈潛玩索, 度古而量今, 引古而比今, 今古相照, 同然一致則, 豈有不適合之理乎. 余昔慨然于此, 間關滿洲二三星霜, 乃與半千多士, 講磨醫學, 又求各門醫書, 剛緊取要, 作為四冊, 命名曰漢方醫學指南. 此非余言也.”

12) 李常和 著. 『漢方醫學指南』「凡例」. 서울. 綜合醫苑社. 1974. p.5.

을 것이다.

增補方 850방 가운데 陳士鐸의 의서와 관련된 처방이 290여 개로 34%를 차지하고 있다. 290개 처방 가운데 『石室秘錄』 15개(5%), 『傳青主女科』 49개(17%), 『辨證錄』 226개(78%)이다. 따라서 『辨證方藥正傳』의 증보방은 진사탁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漢方醫學指南』에서 인용한 의서를 밝힌 것이 많지는 않지만 권1 제4¹³⁾、제5¹⁴⁾、제15¹⁵⁾는 『石室秘錄』, 권2 제30¹⁶⁾은 『辨證奇聞』에서 인용하였고, 권2 제117¹⁷⁾、제818¹⁸⁾、제2719¹⁹⁾、제3020²⁰⁾、제3121²¹⁾、권3 제122²²⁾은 虞搏의 『醫學正傳』을 인용하였다. 『辨證方藥正傳』이라 제목을 붙인 것은 方藥合編 앞뒤로 陳士鐸의 “辨證”과 虞搏의 “正傳”에서 따온 것이 아닌가 한다.

『辨證錄』에서는 변증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여 독자로 하여금 설득력을 갖도록 하였지만 增補方에서는 간단한 증상만 나타내어 왜 이러한 처방을 내리게 되었는지를 알 수 없게 한 것이 아쉽다. 증보방의 처방은 陳士鐸의 『辨證錄』 처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증보방 665에 脾疸을 치료하는 “補火散邪湯”²³⁾

은 白朮 5錢、人蔘 3錢、茯苓 2錢、附子 1錢、半夏 1錢、陳皮 1錢으로 되어 있다. 『辨證錄』의 “補火散邪湯”²⁴⁾은 白朮 3兩、人蔘 2兩、白茯苓 1兩、附子 3錢、半夏 3錢、茵陳 3錢으로 되어 있다. 증보방에서는 중량을 줄였고 陳皮를 가하고 茵陳을 감하였다.

증보방 679에 中邪를 치료하는 “助金祛邪湯”²⁵⁾은 麥門冬 5錢、茯苓 2錢半、白朮、天花粉 1錢半、桔梗、神曲 各1錢、甘草、人蔘、陳皮、蘇子、黃連 各 5分으로 되어 있다. 『辨證錄』에서는 “助金祛邪丹”²⁶⁾으로 명명하고 麥冬 1兩、茯苓 5錢、白朮 3錢、天花粉 3錢、桔梗 2錢、神曲 2錢、甘草 1錢、人蔘 1錢、陳皮 1錢、蘇葉 1錢、黃連 5分으로 되어 있다. 증보방에서는 丹을 湯으로 바꾸고 芍藥의 중량을 줄였으며 蘇葉을 蘇子로 바꾸었다.

증보방 694에 脾火가 鬱遏한 것을 치료하는 “通腸湯”²⁷⁾은 玄參 1兩、當歸、生地 5錢、知母、厚朴、麻仁 1錢、升麻 5分으로 되어 있다. 『辨證錄』에서는 “救土通腸湯”²⁸⁾이라 명명하고 玄參 2兩、當歸 1兩、生地 1兩、知母 1錢、厚朴 3錢、升麻 5分、大麻子 30粒으로 되어 있다. 증보방에서는 處方名을 간략화하고 중량도 조정하였다.

이상에서 열거한 예는 일부에 불과하며 약의 중량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증보방에 나타난 처방이 『方藥合編』에 비해 大方이 많지만 『辨證錄』에 비하면 약의 중량을 훨씬 많이 줄였다. 이는 『한방의학지남』 「서문」에서 增損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비추어 보면 李常和가 참고한 『辨證錄』이 다른 판본이었거나, 혹은 한국 사람의 체질에 맞추어 조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

13) 李常和 著. 『漢方醫學指南』 卷1 「東南治法論·論補中益氣湯(石室秘錄)」。 서울. 綜合醫苑社. 1974. p.32.
 14) 李常和 著. 『漢方醫學指南』 卷1 「西北治法論」。 서울. 綜合醫苑社. 1974. pp.32-33.
 15) 李常和 著. 『漢方醫學指南』 卷1 「脈要十法(石室)」。 서울. 綜合醫苑社. 1974. p.89.
 16) 李常和 著. 『漢方醫學指南』 卷2 「濕病證治(正傳·方藥參辨證奇聞)」。 서울. 綜合醫苑社. 1974. pp.279-280.
 17) 李常和 著. 『漢方醫學指南』 卷2 「中風總論(正傳)」。 서울. 綜合醫苑社. 1974. pp.163-167.
 18) 李常和 著. 『漢方醫學指南』 卷2 「癩病證治(正傳·醫學津梁·黃氏八種·丹溪)」。 서울. 綜合醫苑社. 1974. pp.197-199.
 19) 李常和 著. 『漢方醫學指南』 卷2 「瘟疫總論(正傳)」。 서울. 綜合醫苑社. 1974. pp.273-274.
 20) 李常和 著. 『漢方醫學指南』 卷2 「濕病證治(正傳·方藥參辨證奇聞)」。 서울. 綜合醫苑社. 1974. pp.279-280.
 21) 李常和 著. 『漢方醫學指南』 卷2 「燥症證治(正傳)」。 서울. 綜合醫苑社. 1974. pp.280-282.
 22) 李常和 著. 『漢方醫學指南』 卷3 「虛勞論(正傳)」。 서울. 綜合醫苑社. 1974. pp.287-288.

23) 李常和 著. 『辨證方藥正傳』 《增補最新方藥合編》. 서울.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76. p.341.
 24) 陳士鐸 著. 『辨證錄』 卷7 「五癰門」。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414.
 25) 李常和 著. 『辨證方藥正傳』 《增補最新方藥合編》. 서울.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76. p.343.
 26) 陳士鐸 著. 『辨證錄』 卷10 「中邪門」。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622.
 27) 李常和 著. 『辨證方藥正傳』 《增補最新方藥合編》. 서울.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76. p.345.
 28) 陳士鐸 著. 『辨證錄』 卷9 「大便閉結門」。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525.

Ⅲ. 結 論

287-288.

『辨證方藥正傳』은 李常和가 丙戌(1946)년에 기존의 『方藥合編』을 증보하여 저작한 것이다. 이전의 『방약합편』 588방에 고금의 경험비방 850방을 증보하고 金四物의 四物湯 가감법, 尹草窓의 二陳湯과 平胃散 가감법, 李東垣의 補中益氣湯 가감법, 馮氏의 六味地黃湯 가감법을 덧붙였다. 그가 참고한 고금의 60여종의 의서들은 『辨證方藥正傳』의 增補方에 選方하여 넣은 것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주목되는 것은 『石室秘錄』, 『辨證錄』, 『辨證奇聞』, 『傳靑主男女科』가 포함되어 있다. 『辨證方藥正傳』의 增補方 850방을 분석하자면 陳士鐸의 의서와 관련된 처방이 290여 개로 34%를 차지하고 있고, 290개 처방 가운데 『石室秘錄』 15개(5%), 『傳靑主男女科』 49개(17%), 『辨證錄』 226개(78%)이다.

따라서 이상화의 『변증방약정전』의 증보방은 진사탁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陳氏의 의학사상을 탐색함으로써 처방의 源流를 파악할 수 있고 융통성을 발휘시킬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단행본>

1. 김기욱, 김남일, 김도훈, 김용진, 김홍균 외 11인 著. 韓醫學通史. 고양. 대성의학사. 2006. p.439. pp.437-438.
2. 陳士鐸 著. 『辨證錄』 卷7 「五痺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414, 525, 622.
3. 黃度淵 著. 南山堂編輯局 編譯. 對譯證脈方藥合編. 서울. 南山堂. 1985. pp.5-2.
4. 李常和 著. 辨證方藥正傳 增補最新方藥合編. 서울. 東洋綜合通信教育院出版部. 1976. p.1, 6, 341, 343, 345. pp.1-4.
5. 李常和 著. 漢方醫學指南. 서울. 綜合醫苑社. 1974. p.1, 32, 89. pp.32-33, 163-167, 197-199, 273-274, 279-280, 280-282,